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감염병 월간 소식 Vol.4(8월호)

덥고 습한 여름철 불청객, 유행성 결막염



신광훈

인천 푸른세상안과의원
안과 전문의 / 의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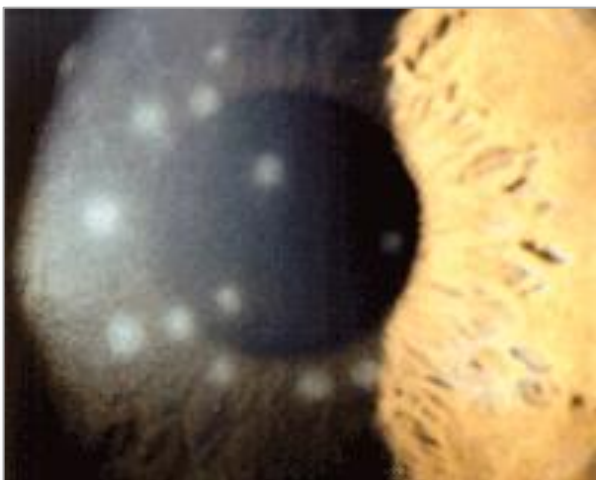
여름철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더위에 시원한 물놀이 후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인 유행성 눈병은 대부분 바이러스성 결막염이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눈곱, 충혈, 이물감, 눈부심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와 같은 증상은 발병 후 3~5일을 고비로 심해지며, 대개 2~3주 정도 지나면 급성 증상이 소실된다. 이 질환은 자연치유가 되지만, 불편감의 증상 완화 및 무엇보다도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안과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각막염 및 각막 혼탁 등이 있다. 각막염 후유증의 경우 상피 손상이 회복되더라도 각막 상피 아래 혼탁이 남게 되면 눈부심, 시력저하를 야기할 수 있고 더러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어 당분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치료로는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 그리고 증상 완화 및 각막 혼탁 예방을 위한 약한 스테로이드 안약의 사용이 주를 이룬다. 더러 심한 경과를 보이는 경우 눈 안에서 염증성 물질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검판 결막에 막이 생기는 가성막 형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제거해 주지 않으면 각막 손상을 야기하고 약물 흡수를 방해하게 되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유행성각결막염은 약 1주 정도의 잠복기를 갖고 있어 가족 중 증상이 나타난 환자가 있을 때는 이미 전염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중요하다. 이는 접촉을 매개로 전파하므로 평소 더러운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힘써야 하며, 유행 시 수영장 등 사람이 많은 곳의 방문을 피하고 눈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지체 없이 안과 진료를 받아 건강한 시각 생활에 힘써야 하겠다.



각막 상피 아래 혼탁



아래 검판 가성막 형성